

# 스티븐 홀의 스트레토 하우스에서 베르그송의 지속의 표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xpression of Bergsonian Duration in Steven Holl's Stretto House

Author 김영희 Kim, Young-Hee / 정희원,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실내디자인전공 석사

Abstract This study aimed to show the possibility of approaching Steven Holl's Stretto House as a vital space identical to the flow of our consciousness through Bergson's philosophy of life by understanding the expression of Bergsonian duration in the house.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Bergson's concept of aesthetic duration was considered and duration in the Stretto House design process was analyzed. Based on the study's findings, duration according to Bergson's expression of reality in the Stretto House was further analyzed.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duration in the Stretto House design process showed that duration is expressed as phenomenological time through the continuity and movement of the perceptual phenomena of space, sound, light and material that reflected Merleau-Ponty's anchoring and Bartok's Music for Strings, Percussion and Celesta.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duration as an expression of reality in the Stretto House showed that duration is expressed as real time, as reality's continuous and diverse movement of vital duration, through the image and rhythm based on the intuitive recollection of the real self, sound, light and pond. Consequently, it was shown that the Stretto House could be understood as a vital space in which a vital movement of duration identical with the flow of our consciousness is expressed through the expression of reality in Bergson's philosophy of life. This study is meaningful as a foundational study of the experiential space of phenomena through Bergson's philosophy of life.

Keywords 스티븐 홀, 스트레토 하우스, 앙리 베르그송, 지속, 현상학적 시간  
Steven Holl, Stretto House, Henri Bergson, Duration, Phenomenological Time

## 1. 서론

###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앙리 베르그송(Henri Bergson, 1859-1941)은 20세기초 실증과학만으로 파악할 수 없는 실재를 대상으로 새로운 형이상학을 구축한 반지성주의의 철학자로, 현대 프랑스 철학의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베르그송은 생철학 또는 생명주의 흐름의 표제로 등장하였고, 광범위하지만 쉽게 정의되지 않는 흐름을 형성시켰다. 그의 철학이 당시 '베르그송주의'라는 거대한 사회 문화적 흐름을 일으켰고, 프루스트(Proust), 페기(Péguy), 끌로델(Claudé), 발레리(Valéry), 드뷔시(Debussy) 등에 깊은 영향을 주었으며, 지금까지도 다양한 예술분야에 영향을 주고 있음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그는, "우리가 분석이 아닌 직관에 의해 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최소한의 유일한 실재는, 시간을 통과하는 우리의 인격 즉 지속하는 자이다."라고

했기에, 그의 철학을 '시간의 현상학'이라고 한다. '지속(durée)'은 구체적이고 직접 체험되고 있는 실재적인 '시간'이므로,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인격 속에서 그 특성이 잘 드러나고, 우리 내면의 지속과 외부의 지속들은 우주의 전체와 관련해서 지속하는 것이므로, 개인들은 인류 전체의 지속과 더불어 전진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그는 인간의 내면과 감성적인 측면을 탐구했으며, 예술가들의 창작행위에 관한 예를 통해서 지속의 개념을 전개해 나갔다. 베르그송은, "예술은 형태화된 형이상학이며, 형이상학은 예술에 대한 반성이다. 철학자와 예술가는 동일한 직관을 서로 다르게 적용시킴으로써 만들어지는 것이다."<sup>1)</sup>라고 했다. 이와 같이 그는 직관으로 실재를 파악할 수 있는 특권적인 사람들을 철학자와 예술가로 지목하였고, 예술작품에 표출되는 생명적인 지속

1) Henri Bergson, Oeuvres, La pensée et le mouvant, Paris: P.U.F., 1970, p.1461(전집의 쪽수)

의 운동이 결국은 영혼의 운동방식이라 했다. 그러므로 예술가는 작품을 창조함으로써 제 영혼의 지속의 운동을 그려 나가며, 자신의 내면을 넘어서 인류에게 확장되어 이상적인 공동체를 구현하게 될 것이라 했다.

이에 그의 철학을 통해서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근원을 모색해 보는 것은 가치가 있다고 본다. 이미 그의 철학을 계승한 철학자 모리스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의 현상학을 통해 건축과 실내디자인의 근원을 모색하고자 하는 논의는, 지각주체의 경험을 중시하는 감성적인 현상학적 건축분야에서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그 현상학의 발생이라 할 수 있는 베르그송의 철학에 관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건축과 실내디자인에서 베르그송의 지속이 어떻게 표현될 수 있는지 파악함으로써, 그의 생철학을 통한 실재의 생명적 지속의 운동으로 우리 의식의 흐름과 동일한 생명적 공간으로의 접근의 가능성을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는 건축과 실내디자인에서 베르그송의 지속의 표현에 관하여 논하며, 그 범위는 스티븐 홀(Steven Holl, 1947~)의 스트레토 하우스(Stretto House, 1992)로 한정한다. 홀은 베르그송 이후 프랑스 현상학의 계보에 있는 메를로-퐁티의 철학개념을 건축개념으로 발전시키면서, 자신만의 독특한 직관과 감성적 디자인방법으로 건축디자인의 본질을 구축하는 건축가라고 할 수 있으며, 특히 그의 스트레토 하우스는 메를로-퐁티의 철학개념과 벨라 바르톡(Béla Bartók)의 악곡을 표현한 건축으로 현상학적 접근이 잘 나타난 감성적인 작품이기 때문이다.

본 연구의 진행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실재적 시간으로서의 지속, 지속을 파악하는 방법, 지속이 드러나는 미적 방식, 지속의 예술과의 관계를 문헌조사를 통해 고찰하여, 베르그송의 형이상학적 실재인 지속의 개념의 미학적 의미를 밝히고 이론적 배경을 정립한다.

둘째, 스트레토 하우스 디자인과정에서 나타난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을 홀의 현상학적 영역으로 나누어 관련문헌을 통해 사례분석하여, 이 주택에서의 지속의 표현을 홀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셋째, 이론적 배경과 홀의 관점에서의 지속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스트레토 하우스에서 나타난 베르그송의 실재의 표출에 의한 지속을 베르그송의 실재로 나누어 사례분석하여, 이 주택에서의 지속의 표현을 베르그송의 관점에서 파악한다.

## 2. 베르그송의 미학적 지속의 개념

### 2.1. 실재적 시간으로서의 지속

베르그송은 실재적 시간을 '지속'으로 보았으며, 이에 비해서 측정이 가능한 과학적 시간은 추상적 시간으로 보았다. 시간을 보려하되 측정하지 않으며, 시간을 파지 하되 멈추게 하지 않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을 대상으로 삼는 의식 즉 자기 자신과의 공감상태가 지속인 것이다. 따라서 의식의 내적 상태에 대한 파악은 시간에 대한 파악이 된다. 실재적 시간은 순수한 의식 자체의 흐름인 지속, 곧 삶 자체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지속은 인간의 의식에서 그 특성이 가장 잘 드러나며, 개별적인 생명 현상에서도 드러난다.

우리 내면의 지속은 병치, 상호외재성, 연장이라는 관념을 배제하며, 질의 다양성, 진행의 연속성, 방향의 단일성을 지니는 순수한 지속이다.<sup>2)</sup> 이러한 순수한 지속이 지니는 다양성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잠식하고, 단일성은 움직이고 변화하며 생기가 감도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이와 같은 의식상태의 다양성을 「의식의 직접적 자료에 관한 시론」에서 두 종류의 다양성으로 구별하였는데, 이것은 들뢰즈(Deleuze)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하나는 공간에 의해 표상된다. 즉 그것은 외부성의, 동시성의, 병치의, 질서의, 양적 분화의, 정도상의 차이의 다양성이며, 불연속적이고 현실적인, 수적 다양성이다. 또 하나는 순수 지속 속에서 나타난다. 즉 그것은 내적인, 연속의, 융합의, 유기체의, 다질성의, 질적 분별의 또는 본성상의 차이의 다양성이며, 수로 환원될 수 없는 잠재적이고 연속적인 다양성이다.”<sup>3)</sup> 여기에서 후자가 베르그송의 지속에 해당되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이러한 연속적 다양성으로서의 순수한 지속에서, 과거는 현재 속으로 들어와 분할되지 않는 전체를 형성하는데, 이 전체는 매 순간 첨가되기 때문에 분할되지 않는다”<sup>4)</sup>고 했다. 또한 그는, “순수한 지속을 구성하는 불가분적인 변화의 연속성은 실재적 시간의 연속적 유동성, 멜로디처럼 계속 증가해가는 변화, 생명의 안정성을 구성하고 있는 운동성이다.”<sup>5)</sup>라고 했다.

베르그송의 실재적 시간은 의식이 침투되어 있는 지속이며, 구분이 불가능한 연속적 운동인 것이다.<sup>6)</sup>

### 2.2. 지속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의 직관

직관(intuition)은 순수한 지속 즉 실재적 지속을 파악

2) Ibid., p.1399(전집의 쪽수)

3) Gilles Deleuze,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 지성사, 2008, pp.48-49

4) Henri Bergson, op. cit., p.1364(전집의 쪽수)

5) Ibid., pp.1383-1384(전집의 쪽수)

6) 김진성, 베르그송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p.122

하는 방법이다. 베르그송은 「사유와 운동」에서 직관과 지성을 비교하기를, “지성에 의한 분석의 방법은 사물의 주위를 돌며 상대적인 것에 머무르는 반면에, 직관의 방법은 사물의 내부에 들어가고 가능한 경우에는 절대적인 것에 도달한다”<sup>7)</sup>고 했다. 분석은 인식하는 사람의 관점과 표현에 사용되는 부호들에 의존하여 대상의 이미 알려진 요소들로 환원시키는 반면에, 직관은 어떤 관점과 부호에도 근거하지 않으면서 대상의 내면과 일치하기 위한 공감이기 때문이다. 직관은 병치가 아닌 계속을, 내면을 통한 성장을, 미래에 겹쳐지는 현재 안에서 끊임없이 연장하는 과거를 파악한다. 따라서 직관적으로 사유한다는 것은 지속 안에서 사유한다는 것이다. 그는 「창조적 진화」에서, “직관은 물질의 본질은 물론 생명의 본질을 파악한다”<sup>8)</sup>고 주장했다.

베르그송은 「물질과 기억」에서 기억의 지속을 통한 물질과 정신의 관계를 규명하기를, 회상으로서의 기억이 정신과 물질의 교차점을 나타낸다고 했다. 회상으로 물 들지 않은 지각은 없다. 순수기억으로서의 정신과 순수 지각으로서의 물질이 만나는 지점이 회상이며, 이 회상이 바로 직관의 대상인 것이다. 직관의 역할은 회상을 불러오고, 회상에 몸체를 부여하고, 회상을 활동적으로 만들어 현실화하는 것이다.<sup>9)</sup>

그는 직관을 실용적인 관심에 초연한 지각이며, 지성의 추진력을 통해서 무관심적으로 진화한 본능, 즉 무관심적 공감으로 보았다. 그리고 예술과 철학에서는 직관을 통해서 실재를 파악하며, 특히 이러한 직관이 예술가의 미적 능력이라 했다.

### 2.3. 지속이 나타나는 미적 방식

지속이 드러나는 미적 방식으로 이마쥬(image)와 리듬(rythme)을 들 수 있다. 이마쥬는 지속의 횡단면으로, 리듬은 지속의 종단면으로 볼 수 있다.

베르그송은 「물질과 기억」에서 이마쥬들이 존속하는 기억으로서의 지속을 다루었는데, 기억은 그 자체로 보존되는 것이며, 과거에 대한 회상으로서의 기억은 이마쥬에 의해서만 나타나는 것이라 했다. 그의 이마쥬에 관한 정의에 의하면, “물질이란 이마쥬의 총체이다. 이마쥬는 사물과 표상의 중간에 위치한다. 우리가 대상을 지각하는 것처럼 그 자체로 생생한 것이다. 이것이 바로 실존하는 이마쥬이다.”<sup>10)</sup> “이마쥬는 보여질 수 있다는 점에서 물질에 가깝고, 만질 수 없다는 점에서 정신에 가까운 것이다.”<sup>11)</sup> 이러한 이마쥬들은 지각의 대상이 되며,

지각된 이마쥬들은 기억 안에서 잠재적으로 존속하며, 회상-이마쥬로서 현재의 지각에 영향을 미친다. 그런데 이마쥬의 형태 하에 기억이 드러나기 위해서는 현재적 행위로부터 초연함이 요구된다. 즉 이마쥬는 미적 직관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마쥬는 직관과 개념사이에서 매개적인 역할을 하며, 직관은 개념보다 훨씬 더 구체적인 이마쥬에 의존한다. 따라서 미적 직관의 대상이며 기억으로서의 지속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이마쥬에 의해서, 지속은 미적 실재로서의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우주의 지속과 그에 참여하는 여러 지속들의 리듬들에 관하여 설명하였는데, “우주는 지속한다. 우리가 시간의 본성을 더 깊이 탐구할수록, 지속이 발명, 형태의 창조, 절대적으로 새로운 것의 연속적인 생성을 의미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과학에 의해 제한된 체계들은 우주의 나머지와 불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지속한다. 우주 안에서 두 가지의 상반된 운동, 즉 하강운동과 상승운동은 구별해야 한다. 하강운동은 풀어지는 태엽처럼 거의 순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나, 상승운동은 성숙된 창조의 내적 작업에 상응하며 본질적으로 지속하며, 자신의 리듬을 전자에 부여한다.”<sup>12)</sup> 즉 우리 내면의 지속과 외부의 지속들은 그 자체로 지속한다기보다는 우주의 전체와 관련해서 지속한다.<sup>13)</sup> 그러므로 각기 리듬을 지니는 여러 지속들에 대한 논의는 제한된 다원론을 이룬다.<sup>14)</sup> 즉 전 우주의 지속에 참여하는 지속들은 동시성 안에서 각기 리듬을 지니면서 다른 리듬에 부딪치고 본성상 다른 지속들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를 리듬의 황홀한 효과 하에서 실제로 이끄는 것은 사실상 모방이다. 리듬이 지니는 미메시스(mimésis)의 효과에 의한 카타르시스(catharsis)라 할 수 있다. 베르그송은, “리듬의 규칙성은 예술가와 우리들 사이의 교감을 세우고, 박자의 주기적 반복은 상상의 꼭두각시를 조종하는 보이지 않는 실과 같다”고 했다. 이 리듬의 효과는 이마쥬의 상상적인 효과를 넘어서 실재에 대한 모방에 이르게 한다. 즉 리듬은 이마쥬보다 더 효과적으로 실재의 미에로 우리를 인도한다. 예를 들어 시를 보면, 시인에게서 감정들은 이마쥬로 발전하며, 이것은 다시 리듬을 따르는 발화들(paroles)로 발전된다. 이 이마쥬들은 리듬의 규칙적인 운동들이 아니면 힘차게 실현되지 못할 것이다. 즉 우리는 시적 리듬의 규칙적인

7) Henri Bergson, 사유와 운동, 이광래 역, 종로서적, 1981, p.149

8) Henri Bergson, Mélanges, Paris: P.U.F., 1972, p.773

9) Henri Bergson, Oeuvres, Matière et mémoire, Paris: P.U.F., 1970, p.213(전집의 쪽수)

10) Ibid., pp.161-162(전집의 쪽수)

11) Henri Bergson, Oeuvres, La pensée et le mouvant, Paris: P.U.F., 1970, p.1355(전집의 쪽수)

12) Henri Bergson, Oeuvres, L'évolution créatrice, Paris: P.U.F., 1970, p.503(전집의 쪽수)

13) Gilles Deleuze,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 지성사, 2008, p.106

14) Ibid., p.107

운동들 덕분에 이마쥬로 발전된 감정들의 정서적으로 동등한 것을 느끼는 것이다. 이러한 리듬은 이마쥬와 마찬가지로 무관심적 공감 즉 직관의 대상으로서 우리에게 실재에 대한 향유를 준다.

이상과 같이 형이상학적 실재인 지속은 이마쥬와 리듬을 통해 미적 실재로서의 의미를 갖는 것이다.

## 2.4. 지속의 분화로서의 예술

베르그송은 「창조적 진화」에서 생명의 도약(*élan vital*)은 분화하는 지속의 운동이며, 이것이 바로 창조(*créatrice*)를 의미한다고 했다.

모든 것은 마치 생명이 여러 갈래로 갈라진 일련들 속에서 분화의 운동 자체와 뒤섞여 있는 것처럼 일어난다. 분화를 겪은 생명은 그 본성으로서 '지속'을 지니며, 예술가는 자신의 의식내부에 있는 이 미묘한 변화의 '실재'를 지각하고 작품으로 표출하는 것이다. 따라서 예술적 창조는 창조의 순간에 생명적인 지속의 운동을 한다. 인간의 내면적 감정보다 더 내적인 생명과 호흡의 일정한 리듬이 포착되는 것이다.<sup>15)</sup>

베르그송은 이러한 물질 속에 흐르는 비물질성을 '우아함(*grâce*)'이라 했다. 그는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것들에 관한 시론」에서 '우아함'이란 우미(優美)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했다. '우아함'이란 실재적 지속의 움직임이며, 물질과 반대되는 '생명적인 운동'이며, '영혼의 운동'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우아함이란 자신의 과거의 운동으로 인해 힘을 받고 자연스레 움직여 나가며, 그 움직임에서 앞으로 올 동작이 미리 예상되기 때문에 편안함을 준다. 즉,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의 움직임이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연속적인 운동이다. 이렇게 최초의 운동에 힘입어 끊임없이 추구되는 창조가 '생명의 도약'인 것이다.<sup>16)</sup> 그리고 예술가가 포착한 이 우아함의 운동은 개별적인 인간들에게도 흐르고 있는 '지속의 리듬'이기에 언제든지 '공감'이 이루어진다. 그러므로 지속의 움직임을 진실하게 담아낸 예술작품과 접하면 관객은 기뻐했다는 듯이 같이 참여하고 싶어지는 것이다.

베르그송은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에서 창조자로서의 인간에게서 생명의 도약이 가장 성공적으로 이행된다고 했으며, 인간 고유의 창조의 원동력으로 직관의 기원인 '정서(*émotion*)'를 제시하고 있다. 정서는 의무처럼 어떤 필연성을 가지고 행위에 대한 요구를 한다. 본능과 습관 이외에 의지에 직접적인 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감성(*sensibilité*)이다. 게다가 감정(*sentiment*)에 의한 추진력은 의무와 매우 흡사하다.<sup>17)</sup> 정서, 감성, 감정은 언제

나 '표면의 흔들림'과 '심층의 분출'의 두 가지로 구분된다. '표면의 흔들림'은 부분들만 동요하는 반면에 '심층의 분출'은 전체를 앞으로 밀고 나간다. 첫 번째 정서는 지성이하의 것이나 두 번째 심층의 정서는 초지성적인 것이다.<sup>18)</sup> 이 심층적 정서는 예술, 과학 등의 창조의 근원이 되며, 동시에 인류 전체로 확장된 완전한 도덕을 구현하기 위한 동력이기도 하다.

베르그송은, "예술은 우리로 하여금 실재 자체와 대면하게 하기 위하여, 실재를 은폐하는 모든 것을 제거하는 것이다"<sup>19)</sup>라고 했다. 즉 실재의 파악을 예술의 목적으로 본 것이다. 또한 예술적 창조란 물질적 요소들이 생명적 존재로 유기화 할 때 부여해야 할 매력적 상태라고 했다.

## 3. 스트레토 하우스 디자인과정에서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

### 3.1. 디자인 개념

홀의 스트레토 하우스는 철학과 음악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

현상학자 메를로-퐁티는 「지각의 현상학」에서, "지각되는 공간은 주체가 역동적으로 상황 지어진 전체적인 존재상태를 지칭하며, 공간성은 주체가 세계 속에 닿을 내리면서 내속되어 있음을 나타낸다. 즉, 지각장이 구체적인 주체에게 정박지를 제안함으로써 공간적 지각의 의미 있게 된다."<sup>20)</sup>고 했다. 이러한 철학적 개념은 홀에 영향을 주었는데, 그의 저서인 「정박(Anchoring), 1989」에서, 그는 물리적인 대지의 상황을 초월하여 시간과 문화, 프로그램, 대지로부터 형성된 제한된 개념내에서, 재료와 빛을 통한 현상적 체험의 공간을 주장했다.<sup>21)</sup> 대지와 건물을 물리적인 통합을 넘어서 형이상학적, 시적, 경험적으로 통합하려는 것이다.

스트레토 하우스에서도 이러한 생각이 반영되는데, <그림 1>에서와 같이 텍사스(Texas)의 세 개의 콘크리트 댐과 연못이 있는 대지에 주택을 '정박'시킨 것이다. <그림 2>와 같이 대지의 공간적 댐(콘크리트)은 무거운 직각의 콘크리트블록으로, 유동의 공간(연못)은 가벼운 곡선 지붕의 금속으로, 대지의 성격을 건축에 반영하여 현상적 체험을 유도하였다.

17) Henri Bergson,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송영진 역, 서광사, 2005, pp.49-50

18) Ibid., p.5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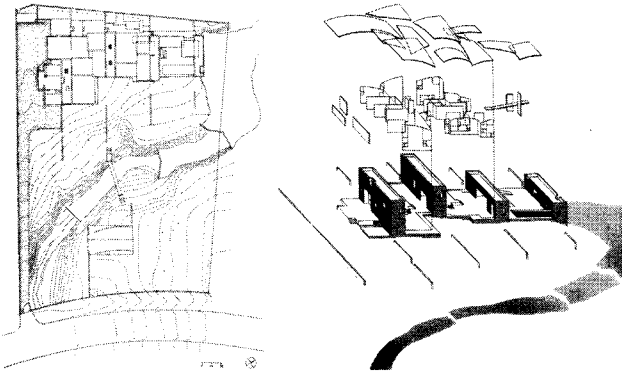
19) Henri Bergson, Oeuvres, Le rire, Paris: P.U.F., 1970, p.462(전집의 쪽수)

20)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 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이학사, 2007, pp.343-344

21) Steven Holl, Anchoring,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1, p.12

15) Henri Bergson, Oeuvres, Le rire, Paris: P.U.F., 1970, pp.119-120(전집의 쪽수)

16) Henri Bergson, Oeuvres, L'évolution créatrice, Paris: P.U.F., 1970, p.584(전집의 쪽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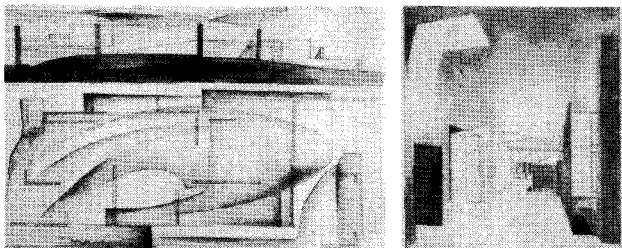
<그림 1> 스트레토 하우스, 배치도      <그림 2> 엑소노메트릭

그리고 이러한 이중적 공간구성은 바르톡의 ‘현과 타악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Music for Strings, Percussion and Celesta, 1936)’을 통해 발전된다. 홀은 이 곡에서 건축적 성격을 느끼고, 이에 비교하여 악곡의 현상학적 시간성<sup>22)</sup>을 표현함으로써, 감성적인 현상적 공간을 제시하였다.

여기서 현상학적 시간<sup>23)</sup>은 ‘의식에 직접 주어지는 것’에 근거하며 ‘본질직관’이라는 인식방법으로 경험되는 베르그송의 실재적 시간과 동일한 개념으로 볼 수 있기에,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이 표현된다고 볼 수 있다.

### 3.2. 개념전개의 도구

홀은 개념을 현상으로 변환시키는 현상적 도구로 다이어그램과 수채화, 모형을 사용하였다. 그는, “직관이 개념화 작업에서의 미묘한 부분을 디자인과 연결시키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하였다. <그림 3>, <그림 4>와 같이, 직관적 사고에 의한 다이어그램과 수채화를 통해, 빛의 질감, 색채 및 다시점의 공간 경험 등을 형상화하여 개념을 시각화하였다.



<그림 3> 초기 수채화, 그림자와 유동공간      <그림 4> 최종 수채화, 유동공간 투시도

이와 같이 수채화로 시각화된 개념은 실제의 건설재료를 사용한 모형작업을 통해 물질성을 부여함으로써, 그 현상적 효과를 실험하였다.

22) 이 악곡의 중심축 시스템에 의한 확고한 조성감은 강한 현상학적 시간성을 내포한다.

23) 의식에 현상하는(나타나는, 드러나는) 시간 즉 의식에 직접적으로 다가오는 경험의 구조로서의 시간을 말한다.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 서울: 까치, 1994, p.51

### 3.3. 개념의 전개

홀은 스트레토 하우스에서 현과 타악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을 표현하는데 있어서 다음의 방정식을 적용하였다.<sup>24)</sup>

$$\frac{\text{재료} \times \text{소리}}{\text{시간}} = \frac{\text{재료} \times \text{빛}}{\text{공간}}$$

음악은 음악적 재료와 소리와 시간의 관계에 관한 예술로, 건축은 건축적 재료와 빛과 공간의 관계에 관한 예술로 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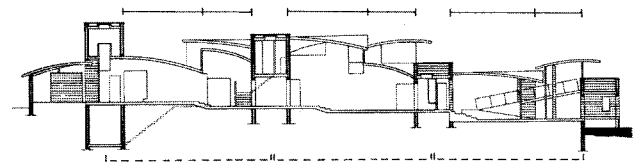
앞의 3.1의 특정한 대지, 악곡으로부터의 디자인개념은, 시간, 공간, 소리, 빛 재료를 엮음으로써 현상적 체험을 고양시킬 수 있다.<sup>25)</sup> 이러한 요소들의 연결은 전체를 창조하고, 개별적 요소로 구별할 수 없는데, 사물은 장(field)으로 흡수되기 때문이다.<sup>26)</sup> 상호얽힘(interwining)의 지각적 현상의 영역을 공간, 소리, 빛, 재료로 나누어, 이 주택에서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공간

홀은 시간과 공간의 얽힘을 구체화할 수 있다면서,<sup>27)</sup> 신체의 움직임에 고려하여 유동적 공간을 제시하였다.

그는, “공간을 통한 신체의 움직임은 공간적 시차(parallax)를 열어주면서 다수의 소실점을 형성한다.”면서, 연속된 투시도의 겹침에 의한 유동하는 공간의 시퀀스(일련의 장면)를 통해<sup>28)</sup>, 다양한 지각적 현상의 변화를 체험하도록 하였다. 공간적 시차는 장면의 지향적 연속, 동적인 전진을 말하고, 연속된 장면은 유동적 공간을 제공한다.

<그림 5>는 중첩되는 공간의 선적인 전진을 나타내며, 대지에 순응하여 점차 낮추어진 바닥면과 곡선지붕의 공간적 댐을 통한 점진적 운동감을 보여준다.



<그림 5> 단면도, 비례

이상과 같은 공간의 지각적 현상의 유동적 연속성, 운동감으로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은 표현된다.

24) Steven Holl, Stretto House: Steven Holl Architects, New York Monacelli Press, 1996, p.7

25) Steven Holl, Interwining: selected projects 1989-1995,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11 참조.

26) Steven Holl, Juhani Palla Gomez,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San Francisco, CA: William Stout, 2006, pp.45-46 참조.

27) Steven Holl, Interwining: selected projects 1989-1995,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11

28) Steven Holl, Stretto House: Steven Holl Architects, New York Monacelli Press, 1996, p.8

(2) 소리

홀은 악곡이 4악장임에 따라 주택을 네 부분으로 구성하였으며, 가벼운 현악기와 무거운 타악기를 대비시킨 것과 관련하여, 가벼운 곡선의 금속과 무거운 직각의 콘크리트블록을 주된 재료로 대비시켰다.<sup>29)</sup> 또한 악곡의 '전위(inversion)'를 모방하여, 네 부분별로 재료와 색채를 치환시키고, 게스트 하우스(guest house)의 형태를 전체 건물의 형태와 도치시켰다.

그 밖에도 <그림 6>의 1악장의 '스트레토(stretto)'<sup>30)</sup> 기법을 모방하여 공간에 부분적인 겹침을 자주 사용하였는데, <그림 7>은 스트레토를 모방하여 중첩시킨 유동적 선율형태의 지붕을 보여준다.



<그림 6> 현과 타악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 스트레토



<그림 7> 스트레토를 모방한 선율형태 지붕

또한 악곡의 1악장의 구성에서의 역동적 황금비례와 대칭적 비례의 겹침을 주택의 단면계획에 적용시켰는데, 앞의 <그림 5>에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소리(악곡)의 지각적 현상의 유동적 연속성, 운동감으로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은 표현된다.

(3) 빛

홀은 텍사스의 강렬한 태양의 빛의 변화를 고려하여,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그림자(shadow)<sup>31)</sup>를 통해 현상적 공간을 제시하였다.



<그림 8> 침수된 방 (flooded room)의 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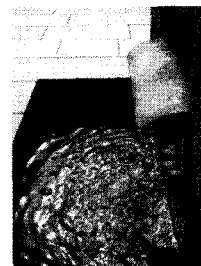
<그림 9> 식당의 멀리온(mullion)

<그림 10> 작품 보관실의 천창

<그림 8>, <그림 9>, <그림 10>은 창문의 형태와 벽과 바닥의 질감과 색채에 따른 그림자의 변화를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빛의 지각적 현상의 유동적 연속성, 운동감으로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은 표현된다.

(4) 재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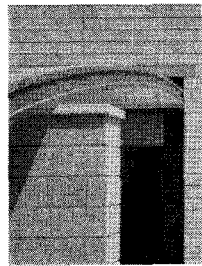
홀은 대지의 콘크리트 댐과 타악기를 나타낸 콘크리트 블록과, 연못과 현악기를 나타낸 금속을 주된 재료로 사용하였다. 그 밖에도 공간의 유동적 흐름을 위해 곡선형태로 주조된 유리와 액체테라조를 사용하였다.<sup>32)</sup> 특히 <그림 11>과 같이 현상을 투영하는 물을 '현상적 렌즈'라 했는데, <그림 12>와 같이 빛에 의한 물의 겹쳐지는 반사의 성격은 '스트레토'와 유사하다.<sup>33)</sup> 또한 <그림 13>의 금속재료는 시간이 지남에 따른 변성과 빛에 의한 물질적 특성을 드러내며 변화한다.



<그림 11> 현관의 분수



<그림 12> 침수된 방의 연못



<그림 13> 지붕과 현관의 금속

이상과 같은 재료의 지각적 현상의 유동적 연속성, 운동감으로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은 표현된다.

4. 스트레토 하우스에서 실재의 표출로서의 지속

베르그송의 지속개념에 따르면, 건축이 예술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건축작품 안에 실재가 지니는 지속이 표출되어야 한다. 스트레토 하우스에 존재하는 실재로는 자아, 소리, 빛, 연못을 들 수 있는데, 베르그송의 실재란 실재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을 내포하고 있으며, 각각의 이마쥬를 가지며 동시성 안에서 각각의 리듬을 드러내면서 지속의 운동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실재의 지속들은 본성상 다른 지속들을 드러내는 제한된 다원론을 이루므로, 실재의 표출에 있어서 상호 얽히기보다 구별되어 나타난다. 실재인 자아, 소리, 빛 연못으로 나누어 이 주택에서 실재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9) Ibid., p.7

30) ①푸가에 있어서 응답이 주제의 완결전에 나타나는 수법으로, 긴장감을 위한 클라이맥스에 많이 사용된다. ②푸가 이외의 악곡에서는, 피날레에 접어들면서 스피드를 더해 긴장감을 높이는 것을 말한다. 이 악곡의 1악장의 푸가형식에서의 스트레토는 ①을 말한다.

31) 윤곽이 뚜렷한 그림자를 말한다. 유사어 'shade'는 광선이 막히어 생기는 그늘을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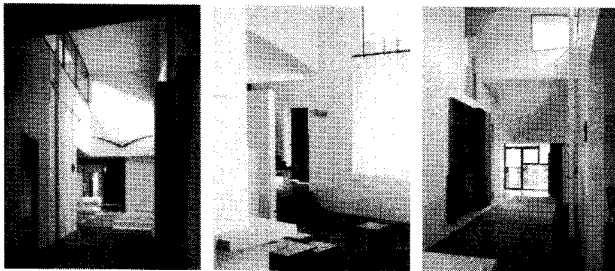
32) Steven Holl, Stretto House: Steven Holl Architects, New York: Monacelli Press, 1996, p.7

33) Steven Holl, Interwining: Selected projects 1989-1995,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p.30

#### 4.1. 자아

이 주택에 존재하는 실재인 자아는 생명적인 지속의 운동을 한다. 자아는 흐름의 연속이다. 즉 상태들의 계속으로서 그 상태 각각은 뒤에 따라오는 상태를 나타내며, 앞선 상태를 포함한다. 즉 매 순간 첨가되어 분할되지 않기에 진행의 연속성, 질의 다양성, 방향의 단일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자아가 주택에서 표출되는 과정은, 직관(초연한 지각)에 의한 회상이 불러온 이마주를 통해서이다. 현재의 지각과 맞닿아 있는 회상, 즉 기억은 이마주에 의해서만 나타나기 때문이다.

자아의 이마주는 유동적 공간으로 나타나는데, <그림 14>는 신체의 움직임에 따른 시퀀스에 의한 유동적 공간으로, 우리는 공간의 시퀀스를 통해 시간 안에서 움직이면서 경험했던 공간과 예상되는 공간을 경험하게 된다.<sup>34)</sup> 따라서 진행의 연속성, 질의 다양성, 방향의 단일성이 나타난다.



a) 현관                      b) 거실                      c) 침실

<그림 14> 시퀀스에 의한 유동적 공간

특히 공간에서의 중첩은 과거의 존속과 미래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진행되는 연속적인 운동감과 미래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또한 앞의 <그림 5>에서와 같이 역동적 형태의 변형, 반복을 통한 선적인 진행은 방향의 단일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유동적 공간에서 규칙적인 주기적 반복의 리듬이 감지되는데, 이것은 네 부분의 공간구성에 따라 형태, 재료, 색채를 동일하지 않게 반복시켰기 때문이며, 이 리듬은 자아의 리듬과 유사하여 실재인 자아에 대한 모방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적 운동의 리듬은 다음에 올 운동을 예견하게 도와주므로 편안함을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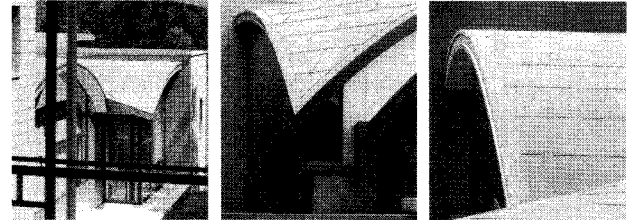
이상과 같이 유동적 공간을 통해서, 자아의 이마주와 리듬이 드러나며, 지속의 운동 즉 실재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은 표현된다.

#### 4.2. 소리

이 주택에 존재하는 실재인 소리 즉 바르톡의 현과 타악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은 생명적인 지속의 운동을

한다. 이 운동은 연속적인 다양성의 순수한 지속의 운동이다. 그리고 이 소리가 주택에서 표출되는 과정은 이마주를 통해서이다.

직관에 의한 회상은 소리의 이마주를 불러오는데, 이것은 유동적인 선율의 형태로 나타난다. 선율은 가장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는 음악의 본질이라 할 수 있으며, 선율의 형태구성에서 직접적으로 그 본질을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림 15>는 이 악곡의 주제선율 형태의 지붕을 나타낸다.



a) 선율형태 지붕              b) 선율형태 지붕              c) 선율형태 지붕

<그림 15> 유동적 주제선율의 형태

주제선율은 시간적으로 경험되는 진행과정에서 의미화된 동일체로 직관되기에,<sup>35)</sup> 과거의 음과 현재의 음이 융합되어 미래의 음을 예고해 주며,<sup>36)</sup> 분할되지 않는 연속적인 운동을 한다. 따라서 진행의 연속성, 질의 다양성, 방향의 단일성을 지닌다. <그림 15>의 지붕형태는 1악장 주제선율의 형태를 변형시킨 후 황금분할지점에서 분할하여, 그 분할된 곡선을 반복적으로 중첩시킨 것으로, 진행의 연속성, 질의 다양성, 방향의 단일성을 나타낸다.

여기에서 규칙적인 주기적 반복의 리듬이 감지되는데, 이것은 악곡의 리듬<sup>37)</sup>과 유사하여, 실재인 악곡에 대한 모방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적 운동의 리듬은 다음의 운동을 예견하게 해주므로 편안함을 준다.

이상과 같이 유동적인 선율의 형태를 통해서, 소리(악곡)의 이마주와 리듬이 드러나며, 지속의 운동 즉 실재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은 표현된다.

#### 4.3. 빛

이 주택에 존재하는 실재인 빛은 생명적인 지속의 운동을 한다. 빛은 흐름의 연속으로서 그 상태는 과거와 미래의 상태를 포함하며, 불가분적이다. 따라서 진행의 연속성, 질의 다양성, 방향의 단일성을 지닌다. 그리고

34) Francis D.K. Ching, Architecture: From, Space, and Order,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9, p.2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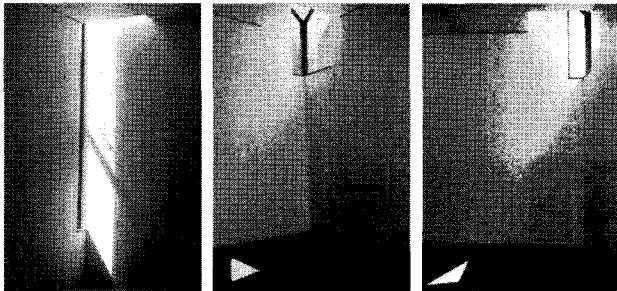
35) 서인경, 조성음악에서의 '형'의 구성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홍익대 박사논문, 1994, p.104

36) 하나의 선율전체는 그것이 들리는 동안은 그 구성음들이 하나의 파악연관 속에서 현재적인 것으로서 지각되며, 그 선율의 마지막 음이 끝나야만 비로소 과거가 된다. Ibid., p.44

37) 음의 길이의 변화있는 진행질서를 말한다. 그러므로 리듬은 음악적 시간의 질서있는 진행의 지속을 조직하고 총괄하는 것이다. 실제에서 리듬은 주기적인 셈여림의 반복인 박자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나타난다. 이 악곡의 1악장의 박자는 마디마다 계속 변한다.

이러한 빛이 주택에서 표출되는 과정은, 직관에 의한 회상이 불러 온 이마쥬를 통해서이다.

빛의 이마쥬는 변화하는 그림자로 나타난다. <그림 16>은 작품 보관실의 빛에 의해 변화하는 그림자를 나타낸다.



a) 작품보관실      b) 작품보관실      c) 작품보관실

<그림 16> 빛에 의해 변화하는 그림자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변화하는 빛에 따라서, 그림자는 방향성을 갖고 연속적으로 변화하며 운동한다. 특히 창문의 형태와 벽과 바닥의 질감, 색채의 변화에 따라서, 그림자는 다양하게 변화하며 운동한다. 그리고 그 상태는 과거의 존속과 미래의 예측을 가능하게 하므로 진행의 연속성, 질의 다양성, 방향의 단일성을 지닌다.

여기에서 그림자의 변화에서 감지되는 규칙적인 주기적 반복의 리듬은, 빛의 리듬과 유사하여, 실재인 빛에 대한 모방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적 리듬은 다음의 운동을 예견할 수 있는 편안함을 준다.

이상과 같이 변화하는 그림자를 통해서, 빛의 이마쥬와 리듬이 드러나며, 지속의 운동 즉 실재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은 표현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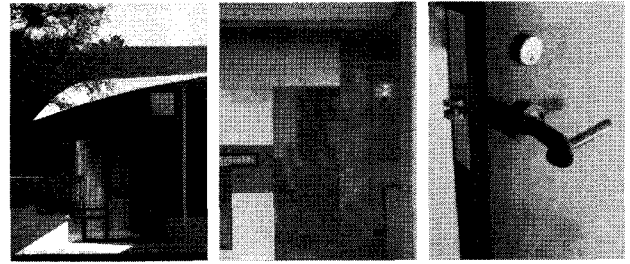
#### 4.4. 연못

이 주택에 존재하는 실재인 연못은 생명적인 지속의 운동을 한다. 연못은 흐름의 연속으로서 그 상태는 과거와 미래의 상태를 포함하며, 불가분적이다. 따라서 진행의 연속성, 질의 다양성, 방향의 단일성을 지닌다. 그리고 이러한 연못이 주택에서 표출되는 과정은, 직관에 의한 회상이 불러온 이마쥬를 통해서이다.

연못의 이마쥬는 변화하는 금속으로 나타난다. 홀은 유동적 연못을 금속으로 표현하였는데, <그림 17>은 변화하는 다양한 금속을 나타낸다.

스틸관 위에 납으로 코팅된 구리 지붕, 모래뿔칠된 알루미늄과 산화시킨 황동판 등의 다양한 재료로 분절된 입구, 구조된 청동의 손잡이를 보여준다. 각기 다른 반사율을 가진 금속들은 빛이 흐르는 방향에 따라서 연속적으로 다양하게 변화하며 운동한다. 특히 붉게 산화된 황동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색상이 변화하기에, 과거의 존속과 미래의 예측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지속

의 운동을 더욱 잘 드러낸다. 즉 진행의 연속성, 질의 다양성, 방향의 단일성을 보인다.



a) 구리 지붕      b) 알루미늄과 황동 입구      c) 청동 손잡이

<그림 17> 시간과 빛에 의해 변화하는 다양한 금속

여기에서 금속의 변화에서 감지되는 규칙적인 주기적 반복의 리듬은, 연못의 리듬과 유사하여, 실재인 연못에 대한 모방에 이르게 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속적 리듬은 다음의 운동을 예견할 수 있는 편안함을 준다.

이상과 같이 변화하는 금속을 통해서, 연못의 이마쥬와 리듬이 드러나며, 지속의 운동 즉 실재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은 표현된다.

이상과 같이 스트레토 하우스는 실재의 이마쥬를 통해서 물질적 요소들이 생명적 존재로 유기화됨으로써, 실재의 생명적인 지속의 운동이 표현된 생명적 건축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이마쥬들은 다시 현재의 시각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우리는 직관적으로 이 주택에서의 지속의 운동 즉 우아함이 우리의 의식의 흐름인 생명의 운동과 동일함에 공감을 느끼고 감동을 하게 되는 것이다.

## 5. 결론

베르그송의 철학은 지속의 상 아래서(sub specie durationis) 생성과 변화를 실제로 파악하는 역동적 형이상학이다. 분화하는 지속의 운동 즉 실재의 파악이 바로 창조인 것이다.

스트레토 하우스 디자인과정에서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의 분석결과, 메를로-퐁티의 정박과 바르투의 현과 타악기와 첼레스타를 위한 음악을 디자인개념으로, 직관적인 현상적 도구를 통해서 감성적인 현상적 공간으로 전개시킴으로써 지속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특정한 대지와 악곡의 성격이 반영된 상호 얽힘의 현상적 영역인 공간, 소리, 빛, 재료의 지각적 현상의 유동적 연속성, 운동감을 통해 현상학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토 하우스에서 실재의 표출로서의 지속의 분석결과, 직관적 회상에 의한 실재의 이마쥬를 통해서 지속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토 하우스에 존재



하는 실재인 자아, 소리, 빛, 연못은 각각의 이마쥬를 가지는데, 자아의 이마쥬는 유동적 공간, 소리의 이마쥬는 유동적 선율형태, 빛의 이마쥬는 변화하는 그림자, 연못의 이마쥬는 변화하는 금속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실재의 이마쥬들을 통해서 동시성 안에서 각각의 리듬을 드러내며, 진행의 연속성, 질의 다양성, 방향의 단일성을 지니는 생명적 지속의 운동 즉 실재적 시간으로서의 지속이 표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스트레토 하우스는 베르그송의 생철학을 통한 실재의 표출에 의해, 우리 의식의 흐름인 생명의 운동과 동일한 생명적 지속의 운동으로 우리에게 공감을 주는 생명적 공간으로 이해될 수 있으며, 이는 그의 생철학을 통해서 생명적 공간으로의 접근이 이루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메를로-퐁티의 현상학에 근원을 두는 스트레토 하우스를 그 현상학의 발생이라 할 수 있는 베르그송의 생철학에서부터 살펴볼 수 있는 시각을 마련하고, 나아가 그의 생철학을 통한 현상의 체험적 공간의 기초적 연구로서 그 의의가 있다. 향후 다양한 공간을 대상으로 한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베르그송의 생철학에 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1. 김영민, 현상학과 시간, 서울: 까치, 1994
2. 김진성, 베르그송 연구, 문학과 지성사, 1985
3. 조광제, 몸의 세계, 세계의 몸: 메를로-퐁티의 「지각의 현상학」에 대한 강해, 이학사, 2007
4. Bergson, Henri, *Mélanges*, Paris: P.U.F., 1972
5. Bergson, Henri, *Oeuvres: Matière et mémoire, Le rire, L'évolution créatrice, La pensée et le mouvant*, Paris: P.U.F., 1970
6. Ching, Francis D.K., *Architecture: Form, Space, and Order*, New York: Van Nostrand Reinhold, 1979
7. Holl, Steven, *Anchoring*,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1
8. Holl, Steven, *Interwining: Selected projects 1989-1995*,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8
9. Holl, Steven, Juhani Palla Gomez, *Questions of Perception: Phenomenology of Architecture*, San Francisco, CA: William shout, 2006
10. Holl, Steven, *Stretto House: Steven Holl Architects*, New York: Monacelli Press, 1996
11. Bergson, Henri, 도덕과 종교의 두 원천, 송영진 역, 서광사, 2005
12. Bergson, Henri, 사유와 운동, 이광래 역, 종로서적, 1981
13. Deleuze, Gilles, 베르그송주의, 김재인 역, 문학과 지성사, 2008
14. 서인정, 조성음악에서의 '형'의 구성에 관한 현상학적 고찰, 홍익대 박사논문, 1994

[논문접수 : 2009. 12. 16]

[1차 심사 : 2010. 01. 18]

[게재확정 : 2010. 02. 05]